

유통업계, '새벽배송 규제' 파장 '성장기회-경쟁심화' 명암 교차

새벽배송 규제 개편 본격화
대형마트, 시장 진입 초읽기
이커머스, 자체 경쟁력 강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규제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거대 플랫폼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규제가 자칫 성장 궤도에 오른 컬리와 오아시스마켓 등 '새벽배송 전문몰'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예고되면서 이커머스 기업들은 규제와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야간 배송 작업 시간을 주 5일 기준 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외부 연구 용역을 토대로 주 40시간 제한이 검토했으나, 배송사들의 반발로 46시간으로 조정된 상태다. 당정은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 대비 30%의 가산 시간이 적용되는데 주 46시간을 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간 기준 약 59.8시간이 되어 과로사 인정 기준 임계치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과 컬리 등 새벽배송을 핵

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물류 운영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 최대 50시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오는 27일 추가 회의를 열고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나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의 새벽배송 시장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 운영 및 온라인 배송을 금지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전국 곳곳에 위치한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즉각적인 새벽배송 공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장 환경 급변은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컬리와 오아시스마켓에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 시간 단축은 배송 기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컬리 관계자는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당장 회사에 미칠 영향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고 다른 택배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컬리와 오아시스마켓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향으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오아시스마켓은 오프라인 전매

장에 자체 개발한 AI 무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선제적인 운영 효율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컬리는 서울 주요 상권에 오프라인 매장 출점 준비에 나섰다.

다만 컬리 측은 최근의 오프라인 행보를 새벽배송 규제에 대비한 생존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컬리 관계자는 "최근의 오프라인 진출 시도는 새벽배송 규제 움직임에 따른 리스크 분산 차원이 아니다"라며 "과거 편의점 협업이나 퀵커머스 사업을 했던 것처럼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똑같이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SSG닷컴은 수혜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야간 노동 규제의 영향권에 있지만 모회사인 이마트가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 시장 장악력을 높일 경우, 그룹 전체 관점에서 SSG닷컴의 물류 부담을 상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다른 플랫폼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벽배송 시장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한국맥도날드, 주요제품 가격 인상
개 메뉴 중 35개(44%)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4%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모습.

/뉴스

홈플러스, 도시락 2종 '990원' 초특가 행사

80% 이상 할인… 1인당 2개 제한

수량을 2개로 제한해 판매한다.

홈플러스가 설 연휴 직후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일까지 '홈플러리' 도시락 2종을 990원에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명절 지출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 품목은 '홈플러리 고추장&간장불고기 도시락'과 '홈플러리 햄&소시지 도시락'이다. 기존 판매가 4990원에서 80% 이상 할인된 990원에 전국 대형마트(온라인 제외)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약 4만 팩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보다 많은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990원 도시락은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보다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인 3723원 보다 약 73% 저렴하며, 6000~7000원대 인 편의점 도시락과 비교하면 최대 86% 싸다. 구성 또한 국산 쌀밥에 불고기, 만두, 소시지 야채 볶음, 계란말이, 볶음김치 등 인기 반찬을 알차게 담았다.

홈플러스는 2022년부터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통해 가성비 메뉴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4년째 6990원에 판매 중인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비롯해 990원 삼각김밥, 3990원 파스타 등이 대표적이다.

/손종욱 기자

신세계百, 봄 맞이 '5메이징 카드 페스타' 돌입

삼성·신한 등 5개 제휴카드사 협력
다양한 장르에서 실질적 쇼핑 혜택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3월 2일까지 5개 제휴카드사와 손잡고 전 카테고리에 걸쳐 풍성한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5메이징 카드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씨티, 삼성, 신한, 하나, BC카드 등 5개 카드사와 함께하는 신세계백화점의 대표 사은 행사다. 봄 시즌을 맞아 패션, 잡화, 리빙, 식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행사 기간 명품·패션·잡화 단일 브랜드에서 제휴카드로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7%를 신백리워드로 돌려준다. 강남점 등 주요 점포에서는 구매 구간별로 최대 70만 리워드를, 광주신세계 등에서는 최대 7만 리워드를 증정한다.

추가 혜택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오는 22일까지 제휴카드로 당일 10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카드사별로 2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며,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지원한다. 앱에서는 위치·주얼리, 패션, 리빙 등 카테고리별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할인 쿠폰도 내려받을 수 있다.

특별한 경품 이벤트도 내세운다. 행사 기간 100만원 이상 구매 후 앱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5명을 추첨해 고품

격 남도 여행 패키지인 '비아신세계 오메이징 럭키 트래블' 초대권을 증정한다. 또한 23일부터는 오후 5시 30분 이후 식당가와 푸드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다이닝 위크'를 진행하며, 삼겹살과 유정란 등 인기 신선식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선착순 쿠폰도 배포한다.

신세계백화점 이성환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봄을 맞아 풍성한 사은 혜택과 여행 이벤트, 다이닝 위크 등 전 카테고리에 걸친 실속 있는 쇼핑 축제를 준비 했다"며 "일상 속 일뜰한 쇼핑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에 만날 수 있다.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가구와 학용 품도 할인한다. '린백' 책상용 의자는 1만 원 할인하며, 메모리폼 쿠션과 방석은 20% 저렴하게 선보인다. 필통, 스케치북 등 주요 학용품 150여 종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쇼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강좌도 마련했다. 롯데마트 문화센터에서는 '볼꾸(볼펜 꾸미기)'와 '백꾸(가방 꾸미기)' 특강을 3월까지 진행해 학생들의 흥미를 돋운다.

/손종욱 기자

롯데마트, 가방·실내화 등 신학기용품 할인

입학·개학시즌 소비자 부담 완화

롯데마트가 3월 신학기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식기류, 가방, 실내화 등 주요 신학기 용품을 최대 30% 할인해 선보인다.

먼저 인기 캐릭터 식기류 150여 종을 최대 30% 저렴하게 내세운다. '넘버블록스 올인원 고정 젓가락 세트'와 '디즈니 주토피아2 교정용 젓가락' 등을 할인

가에 준비했다.

가방과 실내화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자체 브랜드(PB) '오늘좋은' 백팩을 2만9900원부터 선보이며, 나이키 가방 5종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실내화는 '오늘좋은 EVA 실내화'를 6900원에, 'EVA 학생 슬리퍼'는 4900원에 내놓는다. '캐치티니팡', '쿠로미' 등 인기 캐릭터 실내화도 1만원대 초반

오리온

'오!감자' 신제품 출시

오리온은 국민 스낵 '오!감자'의 신제품 '찍먹 오!감자 버터갈릭감자튀김맛(사진)'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찍먹 오!감자 버터갈릭감자튀김맛은 감자튀김을 단순히 캐ップ에 찍어 먹는데서 벗어나 다양한 소스와 조합해 즐기는 MZ 세대의 트렌드에 착안해 기획됐다.

이번 신제품은 칼리디핀 소스뿐만 아



니라 과자 자체에도 버터갈릭 맛을 더해, 달콤한 버터와 은은한 마늘의 중독성 강한 단짠 풍미를 한층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제품보다 과자를 한층 길게 만들어 감자튀김처럼 가볍고 바삭한 식감과 함께 찍어 먹는 재미를 높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